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럴 수가?

서울시민교회 부목사:홍 순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으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홀으리로다 [창세기 49:5~7]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동임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맞사에서 시험하시고 브리바 물 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으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신명기 33:8~11]

혹시 이번 주간에 재수 좋은 날이 있었나요? 아니면 재수 옴 오른 날이 있었나요? 이런 질문을 받는데도 느낌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날도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재수가 있나?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서 “저런 말씀을 들으니 이상하다.” 이런 건지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지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수나 운수나 운명이나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사주팔자 혹은 조상대대로 대물림 되어 오는 저주의 굴레 이런 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이런 표현이나 이런 생각이 전혀 나올 일도 없고 또 실제로 아무 관련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말씀을 통해서 이런 점을 한 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죽기 직전에 12아들의 장래사에 대해서 길게 예언을 합니다. 야곱이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합니다. 분량대로란 말은 자신들의 삶의 결과로 이런 예언이 나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12아들의 장래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열심을 쏟는지에 따라 내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예로 온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에 가족들을 이끌고 어려움을 돌파해간 유다는 훗날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게 됩니다. 가족들을 애굽에 데리고 와서 잘 보살폈던 요셉은 다른 형제의 배나 되는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만이로서 장자권을 이어받을 르우벤은 서모와 간통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장자의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문에 먹칠을 한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날 어떻게 살았느냐 라는 것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장래사를 예언하는데 반영되어 있더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장래사는 자세히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두 아들에게 확실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아들의 장래사를 말하면서 저주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싶은 의아심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야곱이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저주받은 이 두 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으로다’ 이 두 지파가 저주 같은 얘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곱이 세겟성에 머물러 있을 때 세겟성의 추장의 아들이 딸 디

나를 강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겜성 추장의 아들은 자기 관점에서 보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좋아해서 그랬고 그 뒤에 하는 처사를 보면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야곱의 형제들이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된다면 서로 교류하며 결혼도 할 수 있다는 조곤을 걸었는데 세겜성의 추장 아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약속대로 할례를 받고 드러누웠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야곱이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주변의 다른 성에서 이 일을 알게 되면 얼마 안 되는 야곱의 일가족은 몰살을 당할 만한 위험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 주셨기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때의 일을 염두에 두면서 5, 6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홀으리로다’ 한 지파가 되어 모여서 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 지파 가운데로 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아무리 자식이 그렇게 험한 일을 저질렀다 해도 어떻게 이런 저주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렇지만 이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주한지 40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12지파의 장래사를 말합니다. 즉, 야곱이 12아들의 장래사를 말했고 400년 후에 모세가 12아들의 장래사를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견해라면 두 사람의 말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면 달라질 수 없습니다. 같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에 관한 모세의 예언은 신명기 33장 8절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동임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여기서 동임과 우림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림과 동임이 그에게 있다는 것은 그가 제사장 지파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분명히 야곱에게서 저주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거룩한 직분입니다.

레위가 어떻게 이 직분을 받았는지 9절이 설명을 좀 해 줍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으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 형제를 알아보지 않았답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자식도 버리라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 표현이 의미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를 쳤습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책망하는 데도 백성들이 방자하게 굴었습니다. 그 때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나오라!” 그 때 제일 먼저 나온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칼을 차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방자하게 구는 자는 부모든 자식이든 다 쳐라!”고 했습니다. 그 때 레위 지파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을 마구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싯딤이라는 지방에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와 음행을 저질러서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돈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눈물 콧물 뿌리며 회개하고 있을 때에 어떤 남자가 모압 여자를 데리고 보란 듯이 거기를 지나 자기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따라 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꿇어 엎드려 빌고 있을 때에 버젓이 보란 듯이 이방여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합니다. 한 창에 두 남자를 꿰뚫어서 죽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잔혹한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분노를 비느하스가 풀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준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10절에 제사장이 된 레위 지파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외에도 가르치고 분향하는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긴다고 하십니다. 11절에 다른 복을 또 주십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재산을 풍족하게 주시고 원수는 모두 막아 주시는 복입니다. 레위가 제사장이 된 것과 재산이 풍족한 복과 대적하는 자들을 다 꺾어 주시는 복 3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좋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를 받아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백성들도 잘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레위 지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레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제발, 남들은 굶어 죽게 되어도 나만이라도 복을 잘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레위가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돌봄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이런 누가 좋아하죠? 간혹 정신 나간 목사들이 좀 있어요. 목사 말 안 듣고, 다른 교회 가지 마라는데 ‘내 말 안 듣고 가면 하나님께서 허리를 꺾을 거다’ 하고 이 구절을 읽으면? 혹시 그런 말을 들은 분 안 계십니까? 그런 말 들었다고 제게 말씀 하시는 분은 더러 있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한 것이니까 듣고 흘려버리시면 됩니다.” 레위에게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레위가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그 레위에 대하여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의 허리를 꺾어 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교회로 출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니죠? 목사님이 싫어서 교회 안 나가겠다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원인 제공을 누가 제공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을 목사님이 제공해 놓고도 다른 교회로 가겠다는데 이런 구절을 들먹인다면 그건 목사님이 성경을 전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죄송하지만 무시해도 됩니다. 두려워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를 꺾어 버린다’ ‘절대 용서 못한다’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에만 쓰인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용서 받지 못할 죄가 있느냐? 우리가 다시 회개해도 절대로 용서 안 되는 죄가 있느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간혹 있긴 한 것 같은데요? 혹시 눈에 띄거든 예수 안 믿는 죄기 때문에 용서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용서 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성령휘방죄도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대리가 되어서 백성들을 섬기는 레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레위만 복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레위에게 대적하는 자,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이지 레위만 기분 좋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든 레위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영광스러운 일을 맡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저주로 인해서 ‘레위지파는 흩어진다’고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열심히 했더니 레위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제사지내는 직분을 맡아서 누구보다도 복된 지파가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까?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나요? 아니면 모세의 예언이 성취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를 생각해보면? ‘둘 다’입니다. 훗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됩니다. 흩어져 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예언도 맞아 들어가고 모세의 예언도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저주를 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때는 야곱의 그 저주가 복으로 변한 겁니다. 이런 것을 신약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조상들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들이 열성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니 이 저주가 그대로 복으로 화해서 새로운 의미로 나타나더라는 말입니다. 조상들의 일로 인해 어떤 저주를 받았든, 무슨 문제가 있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는 그 저주나 그 문제는 하나

님께서 유용하게 쓰셔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무슨 좋지 못한 것을 물려받았다 한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이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신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똑 같은 저주를 받았던 시므온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정도 궁금증은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 중에 주동 인물이 시므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형이니깐요. 같은 저주를 내렸는데 400여년 후 모세가 레위에게 이렇게 복된 예언을 하고 있을 때에 시므온에게는 뭐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찾아도 안 찾아질 겁니다. 왜요? 없어요! 모세가 12지파의 장래사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시므온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야곱의 저주를 복으로 바꿀 만한 짓을 전혀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장정 수가 얼마나 늘었을까요? 아니면 줄었을까요? 광야 40년을 헤매고 돌아다녀야 했던 이유가 반역했던 사람들이 죽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돌아다녔으니깐 물론 새로 태어난 사람도 있었죠, 우리 짐작으로는 줄어야 정상입니다. 일단 빨리 죽는 게 목표니까요. 그런데 줄지 않습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지파별로 비교해 보면 거의 대부분 지파가 늘었습니다. 유독 시므온 지파만 1/3로 줄어버립니다.

약 6만 명 정도 되었던 인원이 40년 이후에 22,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다른 지파는 다 늘었는데 유독 시므온 지파만 이렇게 줄어 버린 것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이걸 짐작해 해 준 사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느하스 사건입니다.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은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족장이 이 모양이면 그 때 음행을 저질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였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때 죽은 숫자가 24,000명 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그 때 죽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시므온 지파는 레위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겁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을 내었고 시므온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행동을 그대로 했습니다. 같은 저주를 받았어도 레위는 헌신함으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꾼 반면에 시므온은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그 저주를 그대로 실현시킨 셈입니다.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지파는 열심히 싸워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끝까지 싸우려 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답답해서 유다 지파의 땅 남쪽 부분을 시므온 지파에게 넘겨줍니다. 땅을 떼어 주었음에도 시므온 지파는 그 땅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슬렁슬렁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서 떠납니다. 다른 지파로 건너가고 나니 결과적으로 시므온 지파는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독립된 지파로서의 구실을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것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이 모양이니 12지파의 장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모세는 시므온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 가정에 심방을 가서 이런 저런 축복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복을 빌어줄 만한 권덕지가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모세가 시므온 지파를 바라보는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야곱의 저주가 그대로 실현돼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저주를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 그 저주도 바뀌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아주 답답한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시므온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에게 한 대씩 날려 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앞에서 왜 나는 시므온 같다고 말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무엇이랴도 해보고 “저,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마음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요? 그렇게 사시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면 하나님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터인데 왜 ‘시므온 같아요’ 하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타고난 사주팔자가 더럽거나 궁합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궁합은 누가 가르쳐 줘니까?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은 모두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신문에 이런 글을 봅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국민일보에도 나오더라고요. 아휴, 신문도 광고를 좀 보고 신지……? 이것은 기독교인 할 말이 아니에요, 역마살이 줄줄이 끼었고 남편을 셋은 둘 팔자고... 설령 그런 팔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은 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타고난 팔자가 전부 바뀐 사람들입니다.

팔자?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사주, 팔자, 재수, 운명 이런 것은 다 쓰지 마십시오. 딱 한 군데 팔자라는 말은 “난, 팔자 고친 사람이야!” 이말 할 때만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을 인정하지 않는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우연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팔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딱 한 번만 쓰십시오. “나는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열심히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마저도 복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삶을 지킴을 것이고 우리 후손들의 삶도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으로 믿고 팔자 고친 사람의 행복을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